

중년기 여성의 실제체형과 신체의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최 유 미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손 희 순

目 次

I. 서론	IV. 결론 및 제언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및 고찰	ABSTRACT

I. 서론

인간관계나 사회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서 성립하고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의복에 대한 요구는 다면적이며 모든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의복은 감성을 갖는 인간의 신체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의복과 관련한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며(植竹, 1988) 신체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등의 여러가지 시점에서 취급해야 한다. 이런점에서 신체적·심리적인 양측면 모두에서 적합도 높은 의복제작은 필수적요소라고 보아진다.

신체적 특징에 적합한 의복제작을 위한 체형연구 및 원형개발연구등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의복산업의 추세로 볼 때 연령 및 체형세분화를 통한 다각적인 체형정보 수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년기 여성은 임신·출산을 거치면서 신체비례의 균형이 달라지고 연령증가 및 신진대사기능의 감소등으로 비만화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체형의 변화는 의복착용시 의복이 신체에

잘 맞지 않는 주된 원인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심리적 위기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신체평가 또는 신체만족도 및 의복선택행동등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와 의복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연구(神山進외 2인, 1987)와 신체분석과 의복 Fit성에 대한 만족도연구(Karen & Marilyn, 1990),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정삼호, 1991)등이 있으며, Kefgen & Touchie-Specht(1986)은 개인의 외모와 의복선택연구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란 스스로의 신체분석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인식이며, 실제연구에서 자신의 정확한 신체적 영상을 가진 사람은 소수라고 하였다.

그러나 계측에 의한 직접적인 체형연구나 의복에 대한 행동의 심리적 접근이나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독립적으로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만 실제체형과 개인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평가 및 신체 각 부위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들은 아직 미약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체형의 변화가 많은 중

년여성을 대상으로 신체계측과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신체형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이상적으로 설정한 신체 이상형과 실제 신체와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만족도와 비만·빈약에 대한 의식등 실제신체와 복합적 신체이미지와 종합적인 관계를 고찰하여 중년여성의 신체적·심리적 측면 모두에서 적합도 높은 의복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중년기에 대한 시기구분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분하여 Tate & Glisson(1963)은 40~50대를 중년기로 보았으며, 이영운(1982)은 40~64세를, 한애미(1987)와 이영희(1987)는 40~55세를, 손희순(1989)은 35~54세를 중년기로 하였으며, 이종남(1982)은 노년기 여성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연구에서 55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체형특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연령으로 40~54세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의 분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40~44세 90명, 45~49세 80명, 50~54세 80명으로 총 250명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신체계측과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기간은 1993년 8월과 1995년 8월과 9월이었으며,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50명의 계측자료와 응답이 미비한 자료를 제외한 210부의 설문자료이다.

인체계측에는 마틴 인체계측기(Martin's Anthropometric Instruments)와 5mm폭 줄자를 사

용하였으며, 보조용구로는 계측대(leveling platform), 진동돌래용 고무줄, 허리선 표시용 2cm폭 고무벨트, 셀룰로이드판, 기준점 표시용 접착 테이프등을 사용하였다.

인체계측시 기준점과 기준선은 인체측정용어인 KS A 7003에 의하였고, 계측방법은 인체측정방법인 KS A 7004에 준하였으며 피계측자는 팬티만을 착용한 상태에서 계측되었다.

2. 계측항목 및 설문항목

계측항목은 중년기 여성의 체형파악과 의복구성에 필요한 항목으로 높이부위 5항목, 너비부위 8항목, 두께부위 5항목, 둘레부위 14항목, 길이부위 7항목, 몸무게 1항목의 총 40항목을 계측하였다.

설문항목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치수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체부위에 대한 평가 20문항, 신체부위에 대한 만족도 18문항,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 신체치수 5문항, 전반적인 자기신체에 대한 비만·빈약도 1문항으로 총 44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 및 치수기입법으로 응답하게 하였다<표 1>.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자료는 SA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고, 각 내용별 분석법위는 다음과 같다.

1) 중년여성의 개괄적인 신체평가 및 신체만족도 신체평가 20항목과 신체만족도 18항목의 총 38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를 구하고, 신체평가~신체만족도와 신체계측치~신체만족도의 각 항목들에

<표 1> 설문항목의 개요

조사내용	문항수	평가방법
A 신체부위에 대한 평가	20문항	5점척도(1=작다, 5=크다)
B 신체부위에 대한 만족도	18문항	5점척도(1=가장 불만족, 5=가장 만족)
C 신체의 비만/빈약에 대한 의식	1문항	5점척도(1=말랐다, 5=뚱뚱하다)
D 이상 신체치수	5문항	치수기입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행하여 상호간의 상관성을 비교 검사하였다.

2) 계측치에 의한 비만·빈약의 객관적 체형분류 Röhler지수(= (몸무게 / 키³) × 10⁵)를 사용하여 계측자료를 하위 25%에 해당하는 Röhler지수 1.414미만을 마른체형, 50%에 속하는 Röhler지수 1.414이상 1.681미만을 표준체형, 상위 25%에 속하는 Röhler지수 1.681이상을 뚱뚱한 체형으로 분류하였고, 분류된 체형그룹의 계측치 기술통계량 및 F값과 Duncan-test를 실시하여 체형별 특징을 검사하였다.

3) 체형별 신체만족도의 차이 고찰

계측자료를 기준으로 분류된 각 체형별 신체만족도항목의 평균, 표준편차와 F값 및 Duncan-test를 구하고 각 체형별 인자분석을 실시하여 체형별 만족도를 구성하는 주정보를 비교하여 체형별 신체만족도에 작용하는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4) 현실치와 이상치의 비교검사

계측치와 계측치에 대한 이상치의 비를 비교검사하여 신체부위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가장 많은 관심을 표명하는 키, 몸무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5항목에 관하여 실제계측치의 표준점수를 독립변수(설명변수)로 하고 각 개인의 현실치에 대한 이상치의 비를 종속변수(반응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회귀식을 구하고 회귀직선으로 나타내었다.

5) 객관적 비만·빈약도와 비만·빈약에 대한 의식과의 비교고찰

객관적 비만도인 3체형집단과 각 개인의 비만·빈약에 대한 전반적인 신체의식과의 관계를 분할표분석으로 고찰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중년여성의 개괄적인 신체평가 및 신체만족도

1-1) 신체평가 및 신체만족도 고찰

전체 중년여성의 신체 각 부위에 관한 개괄적인 신체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평가 및 신체만족도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평가에서 평균들은 2.25~3.84에 분포하고 있으며, 굵기에 대한 신체평가항목들은 전체적으로 3.01~3.84에 분포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굵기에 대해 보통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의 항목에서 3.75이상의 평가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길이에 대한 신체평가항목들에서 다리길이, 키의 항목은 각각 2.62, 2.25의 평가점수로서 보통이하로 평가하고 있고 팔길이와 어깨너비는 3.10, 3.38로 나타나 중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이상에서, 전체 표본자료에 의한 신체 각 부위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들레부위등의 굵기와 관련한 항목에서는 보통이상으로 굵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허리, 배, 엉덩이등의 하반신몸통부분을 구성하는 신체부위와 몸무게에 대해 굵고 무겁다고 평가하고 있음이 파악되었고, 길이와 관련한 항목인 키와 다리길이에서는 작거나 짧다고 평가하는 경향으로 파악되었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 항목에서는 신체만족도의 모든 항목들이 3.0이하로 나타났고 전체평균이 2.60으로 나타나 신체 각 부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향으로 파악되었고, 2.33이하의 낮은 만족도점수를 나타내어 신체불만도가 높은 신체부위들은 허리둘레, 배둘레, 몸무게, 키의 항목으로 나타나 신체평가에서 굵고 짧다고 평가한 대표적 항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굵고 짧다라고 평가하는 신체부위들에서 신체불만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신체평가 및 신체만족도의 기술통계

(n=210)

신체부위	신체평가	평균	신체만족도	평균
가슴둘레	A1(작다-크다)	3.19	B1(불만족-만족)	2.70
허리둘레	A2(가늘다-굵다)	3.84	B2(불만족-만족)	2.24
배둘레	A3(가늘다-굵다)	3.80	B3(불만족-만족)	2.33
엉덩이둘레	A4(작다-크다)	3.75	B4(불만족-만족)	2.41
목둘레	A5(가늘다-굵다)	3.04	B5(불만족-만족)	2.94
위팔둘레	A6(가늘다-굵다)	3.50	B6(불만족-만족)	2.70
아래팔둘레	A7(가늘다-굵다)	3.23	B7(불만족-만족)	2.92
손목둘레	A8(가늘다-굵다)	3.01	B8(불만족-만족)	2.98
넓적다리둘레	A9(가늘다-굵다)	3.63	B9(불만족-만족)	2.54
장딴지둘레	A10(가늘다-굵다)	3.31	B10(불만족-만족)	2.73
팔둘레	A11(가늘다-굵다)	3.24	B11(불만족-만족)	2.75
팔길이	A12(짧다-길다)	3.10		
다리둘레	A13(가늘다-굵다)	3.33	B12(불만족-만족)	2.58
다리길이	A14(짧다-길다)	2.62		
(상)몸통둘레	A15(가늘다-굵다)	3.50	B13(불만족-만족)	2.56
(하)몸통둘레	A16(가늘다-굵다)	3.67	B14(불만족-만족)	2.47
(전)몸통둘레	A17(가늘다-굵다)	3.53	B15(불만족-만족)	2.54
몸무게	A18(가볍다-무겁다)	3.80	B16(불만족-만족)	2.21
어깨너비	A19(좁다-넓다)	3.38	B17(불만족-만족)	2.93
키	A20(작다-크다)	2.25	B18(불만족-만족)	2.30

A1~A20 : 5점척도(1=작다~5=크다)

B1~B18 : 5점척도(1=가장 불만족~5=가장 만족)

1-2) 신체평가 및 신체계측치와 신체만족도의 상관관계

신체평가 및 신체계측치와 신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신체평가와 신체만족도, 신체계측치와 신체만족도의 각 항목들에 관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행하였다(표 3).

신체 각 부위에 대한 평가와 신체만족도간의 상관분석결과, 가슴둘레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유의성이 높았고 「둘레항목과 몸무게등을 포함하는 신체의 굵기에 대한 부위」는 모든 항목이 음의 상관으로 나타났다. 음의 상관은 작다, 가늘다, 가볍다 등의 작은 것에 만족함을 의미하므로 신체굵기에 대한 부위들에서는 모든 항목이 작다, 가늘다, 가볍다등의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넓적다리둘레, (상)몸통둘레, (하)몸통둘레,

몸무게에서는 $-0.514 \sim -0.715$ 의 높은 음의 상관을 나타내어 특히 이들 부위에서는 작을수록 만족도가 강한것으로 해석되었다. 가슴둘레에서는 다른 굵기부위와 마찬가지로 음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작을수록 만족하는 경향이나 음의 상관도가 낮아 큰것에 대한 불만족도가 다른 굵기부위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신체의 길이항목에서의 평가와 신체만족도의 상관계수들은 어깨너비를 제외한 나머지항목에서 양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의 상관은 크고 긴것에 만족함을 의미하므로 신체 길이에 대한 부위에서는 길고 큰것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키의 항목에서 0.7이상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어 키가 클수록 만족하였고 팔길이와 다리길이에서는 0.231~0.276의 양의 상관을 나타내어 팔과 다리가 긴것에 만족하고 있고 어깨너비에서

는 음의 상관을 보여 어깨가 좁은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길이부위의 상관계수들은 굽기부위에 비해 낮은 상관계수들로 파악되어 신체만족도는 길이부위보다는 굽기부위의 평가와 상관성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체계측치와 신체만족도와의 상관관계분석결과, 신체의 굽기에 관한 항목은 모든 항목에서 음의 상관을 나타내었고 길이에 관한 항목들에서는 양의 상관을 나타내어 신체평가와 신체만족도간의 상관관계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계측치와 신체만족도의 상관은 신체평가와 신체만족도와의 상관계수들보다 낮은 상관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신체만족도는 길이부위보다는 굽기부위의 평가와 상관성이 더 강하며 신체계측치보다는 신체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더욱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계측치에 의한 비만·빈약의 객관적 체형분류

중년여성 체형을 비만·빈약의 객관적 그룹으로 체형을 분류하기 위해 Röhler지수를 사용하여 25%, 50%, 25%를 기준으로 체형을 분류한 결과, 각 체형별 피험자분포는 마른체형집단에는 40~44세 연령집단이 61.29%로 가장 많이 속해 있으며 45~49세 연령집단은 22.58%로 그 분포율이 현저하게 낮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54세 연령집단에서는 16.13%로 나타나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45~49세 연령집단의 분포율과 비교해서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체형집단은 전 연령대에서 30%이상의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비만체형집단에는 50~54세의 연령집단에서 45.31%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40~44세의 연령집단의 분포율이 가장 낮았다(표 4).

〈표 3〉 신체평가~신체만족도 및 신체계측치~신체만족도간의 상관계수

통계치 신체부위	신체평가~신체만족도		신체계측치~신체만족도	
	변수명	상관계수	변수명	상관계수
가슴둘레	A1-B1	-0.111	X20-B1	-0.200**
허리둘레	A2-B2	-0.715***	X21-B2	-0.467***
배둘레	A3-B3	-0.636***	X22-B3	-0.433***
엉덩이둘레	A4-B4	-0.524***	X23-B4	-0.295**
목둘레	A5-B5	-0.407***	X19-B5	-0.262***
위팔둘레	A6-B6	-0.527***	X25-B6	-0.398***
아래팔둘레	A7-B7	-0.353***	X27-B7	-0.209*
손목둘레	A8-B8	-0.342***	X28-B8	-0.212***
넓적다리둘레	A9-B9	-0.547***	X29-B9	-0.382***
장딴지둘레	A10-B10	-0.435***	X31-B10	-0.321**
팔둘레	A11-B11	-0.382***		
팔길이	A12-B11	0.231**	X38-B11	0.107
다리둘레	A13-B12	-0.382***		
다리길이	A14-B12	0.276***	X4-B12	0.286***
(상)뽕통둘레	A15-B13	-0.537***		
(하)뽕통둘레	A16-B14	-0.514***		
(전)뽕통둘레	A17-B15	-0.461***		
몸무게	A18-B16	-0.612***	X39-B16	-0.486***
어깨너비	A19-B17	-0.162*	X7-B17	-0.137*
키	A20-B18	0.716***	X1-B18	0.631***

*p≤0.05 **p≤0.01 ***p≤0.001

〈표 4〉 체형별 피험자분포

연령 체형	40~44세	45~49세	50~54세	합 계
마른체형	40(61.29%)	14(22.58%)	10(16.13%)	62(100%)
보통체형	39(31.20%)	46(36.80%)	40(32.00%)	125(100%)
뚱뚱한 체형	13(20.63%)	20(31.75%)	30(47.62%)	64(100%)
합 계	90(36.00%)	80(32.00%)	80(32.00%)	250(100%)

Röhrer지수에 의해 분류된 체형별 Röhrer지수는 마른체형은 1.33, 표준체형은 1.53, 뚱뚱한 체형은 1.82로 나타났고(표 5), 각 체형별 계측치의

〈표 5〉 체형별 Röhrer지수 평균값 F값, Duncan-test 결과

통계치	체형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
Röhrer지수 평균	1.33	1.53	1.82
표준편차	0.06	0.08	0.12
Duncan-test	C	B	A
F값	379.85***		

***p≤0.05 **≤0.01 ***p≤0.001

평균, 표준편차에서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은 키를 비롯한 높이항목이 가장 크고 너비, 두께, 들레, 몸무게가 가장 낮은 체형집단이며, 뚱뚱한 집단은 높이항목에서 가장 작은 수치를 보이며 너비, 두께, 들레 및 몸무게가 가장 큰 체형집단으로 파악되었고, F-test 및 Duncan-test를 행한 결과 전체 40항목중 6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표 6).

3. 체형별 신체만족도 분석

3-1) 체형별 신체만족도 기술동계

체형별 신체만족도의 F-test를 행한 결과 전체 18항목중 12항목에서 체형집단간 유의차가 인정되었고(표 7),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의 평균들을 Duncan 다중비교 검정(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한 결과 마른체형집단과 표준체형집단이 뚱뚱한 체형집단보다 만족도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뚱뚱한 체형집단이 가장

불만족한 집단으로 파악되었고,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집단은 각 항목의 평균의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만족도에 작용하는 체형 집단별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인자분석을 실시하고 구성인자를 추출하여 체형별 구성인자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3-2) 체형별 신체만족도 인자분석

인자의 수는 Kaiser가 제시한 고유치(Eigenvalue) 1.00이상의 것으로 하였고 추출된 인자와 인자부하량에 대한 변수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Varimax방법에 의해 직교회전시켜 간결화시켰다.

(1) 전체집단

전체집단의 신체만족도 인자분석결과(표 8), 4개의 인자가 추출되었고 누적변량은 76.9%이다.

인자 1은 몸무게와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상)몸통둘레, (하)몸통둘레, (전)몸통둘레등에서 높게 부하하고 있으므로 몸무게와 몸통부위둘레 인자로 해석된다. 인자 1의 고유치는 8.02로 전체변량의 44.6%를 설명하고 있다.

인자 2는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 전체적인 다리둘레 및 길이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리부위와 관련한 인자로 해석된다. 인자 2의 고유치는 2.59이고 변량기여율은 14.4%이며, 인자 2까지의 누적변량은 59.0%이다.

인자 3의 고유치는 1.80이며 변량기여율은 10.0%로 나타났고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전체적인 팔둘레 및 팔길이의 항목에서 높게 부하하므로 팔

<표 6> 체형별 직접계측치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Duncan-test결과

(단위 : cm)

신체 부위		체형		표준체형		중등한체형		F값	Duncan -test
		마른체형	Mean	Std	Mean	Std	Mean		
높이 항목	1. 키	157.95	4.28	154.71	5.24	151.89	4.80	19.68***	a b c
	2. 목뒤높이	134.62	4.22	131.86	4.93	129.52	4.74	15.15***	a b c
	3. 허리높이	96.71	3.62	94.38	3.97	92.46	4.25	14.82***	a b c
	4. 장골극높이	86.26	3.12	84.26	3.85	82.47	4.31	12.78***	a b c
	5. 무릎높이	42.27	2.42	41.21	2.28	40.38	2.17	8.89***	a b c
너비 항목	6. 목밑너비	11.62	0.84	11.57	0.85	11.75	0.84	0.81	
	7. 어깨너비	35.10	2.33	34.64	1.90	35.12	1.84	1.42	
	8. 앞폭	32.64	1.93	32.35	1.72	33.36	2.15	4.91**	b b a
	9. 뒤폭	36.88	2.29	37.04	1.97	38.14	2.15	5.94**	b b a
	10. 가슴너비	26.97	1.81	28.51	1.40	30.81	2.09	66.73***	c b a
	11. 허리너비	24.18	1.42	25.71	1.60	27.74	2.15	56.09***	c b a
	12. 배너비	29.52	1.97	31.07	1.72	32.82	1.79	43.23***	c b a
	13. 엉덩이너비	31.60	1.51	32.45	1.64	33.34	1.64	15.09***	c b a
두께 항목	14. 진동두께	9.87	1.01	10.55	0.90	11.32	1.01	29.61***	c b a
	15. 가슴두께	21.71	1.77	23.45	1.72	25.74	2.21	60.60***	c b a
	16. 허리두께	17.87	1.80	20.20	1.93	23.63	2.69	96.35***	c b a
	17. 배두께	20.48	1.85	23.05	2.01	26.29	2.56	96.74***	c b a
	18. 엉덩이두께	21.21	1.74	23.14	1.69	25.48	2.59	61.04***	c b a
둘레 항목	19. 목밑둘레	37.21	2.43	38.14	2.58	39.98	2.92	15.09***	b b a
	20. 가슴둘레	84.46	4.78	89.99	4.78	97.68	6.26	84.52***	c b a
	21. 허리둘레	69.95	4.14	75.88	5.02	84.42	7.57	87.52***	c b a
	22. 배둘레	84.22	4.54	89.95	5.02	97.59	6.86	78.65***	c b a
	23. 엉덩이둘레	90.58	4.08	94.05	4.56	99.09	5.17	44.74***	c b a
	24. 진동둘레	38.24	2.69	40.73	2.44	42.81	3.01	38.16***	c b a
	25. 윗팔둘레	27.95	1.89	30.01	2.13	32.16	2.27	51.33***	c b a
	26. 팔꿈치둘레	23.17	1.67	23.78	1.65	24.95	1.91	14.42***	b b a
	27. 아래팔둘레	22.92	1.32	23.85	1.33	25.06	1.80	27.72***	c b a
	28. 손목둘레	15.46	0.64	16.05	0.81	16.52	0.89	22.98***	c b a
	29. 넓적다리둘레	51.30	3.11	53.70	3.05	56.73	3.23	39.58***	c b a
	30. 무릎둘레	33.61	1.41	34.77	2.30	35.95	2.96	13.12***	c b a
	31. 장딴지둘레	32.55	1.64	33.58	2.28	35.46	3.05	20.24***	c b a
	32. 발목둘레	20.61	1.10	21.06	1.56	21.61	1.44	6.36**	c b a
길이 항목	33. 어깨길이	12.83	1.16	12.80	1.34	12.85	1.41	0.03	
	34. 유두길이	27.29	2.00	28.60	2.49	30.58	2.87	23.02***	c b a
	35. 앞길이	40.80	1.44	41.23	2.34	42.36	2.49	7.20**	b b a
	36. 등길이	39.44	1.29	39.06	1.92	39.36	1.94	0.96	
	37. 뒤길이	41.78	1.61	41.58	2.09	42.19	1.86	1.75	
	38. 어깨점-팔꿈치점길이	31.43	1.55	30.89	1.76	30.30	1.56	5.97**	a ab b
	39. 소매길이	54.23	2.14	53.76	2.55	53.16	2.71	2.40	a ab b
기타	40. 몸무게(kg)	52.35	4.21	56.87	5.74	63.77	7.12	51.00***	c b a

*p<0.05 **p<0.01 ***p<0.001 a>b>c

〈표 7〉 체형별 만족도 점수

통계치 신체부위	마른체형		표준체형		뚱뚱한체형		F값	Duncan -test
	Mean	std	Mean	std	Mean	std		
가슴둘레	2.68	0.97	2.78	1.10	2.51	1.17	0.48	
허리둘레	2.80	1.09	2.31	1.21	1.58	0.96	13.75***	a a b
배둘레	2.81	0.87	2.43	1.04	1.68	1.81	10.21***	a a b
영덩이둘레	2.55	1.12	2.52	1.11	2.12	1.17	2.65*	a a b
목둘레	3.08	0.97	3.07	1.02	2.64	1.05	2.91*	a a b
위팔둘레	2.84	1.08	2.85	1.05	2.37	0.84	4.16*	a a b
아래팔둘레	2.94	1.06	3.04	1.03	2.73	1.02	2.02	
손목둘레	2.99	1.01	3.10	1.12	2.81	0.97	2.32	
넓적다리둘레	2.78	1.14	2.56	1.06	2.26	1.07	2.91*	a ab b
장딴지둘레	2.75	1.06	2.78	1.02	2.63	1.09	0.30	
팔	2.91	0.90	2.94	0.95	2.39	0.82	6.25**	a a b
다리	2.67	1.13	2.58	1.06	2.45	0.84	0.76	
(상)몸통둘레	2.83	0.90	2.69	1.00	2.13	0.92	7.11**	a a b
(하)몸통둘레	2.74	1.88	2.52	0.95	2.12	0.96	5.02**	a a b
(전)몸통둘레	2.90	0.79	2.65	1.00	2.03	0.86	11.15***	a a b
몸무게	2.59	1.08	2.43	1.06	1.59	0.98	11.47***	a a b
어깨너비	2.90	1.24	3.06	1.19	2.83	1.08	2.12	
키	2.83	1.34	2.30	1.16	2.21	1.04	3.99*	a b b

*p≤0.05 **p≤0.001 ***p≤0.001 a>ab>b

〈표 8〉 전체집단의 신체만족도 인자구성내용

인자	고유치	변량기여율	인자의 내용
1	8.02	44.6%	몸무게 및 몸통부위 둘레와 관련한 인자
2	2.59	14.4%	다리부위와 관련한 인자
3	1.80	10.0%	팔부위와 관련한 인자
4	1.42	7.9%	키와 어깨너비관련 인자

부위와 관련한 인자로 분석된다.

인자 4는 키와 어깨너비의 인자로 파악되었고 인자 4의 고유치는 1.42로 변량의 기여율은 7.9%에 해당한다.

이상의 결과로 중년기여성 전체집단의 신체만족도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인자는 키나 팔·다리 등의 사지부위보다는 몸무게를 포함한 상·하반신의 몸통부위인 신체중심부위 둘레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2) 마른체형집단

마른체형집단은 추출된 인자수가 3개이며 80.3%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표 9).

〈표 9〉 마른체형집단의 신체만족도 인자구성내용

인자	고유치	변량기여율	인자의 내용
1	9.09	50.5%	몸무게 및 몸통부위 둘레와 관련한 인자
2	3.63	20.2%	키와 팔부위 및 어깨너비와 관련한 인자
3	1.73	9.6%	다리부위와 관련한 인자

인자 1은 몸무게 및 몸통부위둘레관련 인자로 해석되어 전체집단과 같은 인자내용을 보이나 전체집단의 인자 1의 변량기여율 44.6%보다 높은 50.5%의 변량기여율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집단보다 인자 1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자 2는 키와 팔부위 어깨너비와 관련한 항목으로 해석되었고, 인자 3은 다리부위와 관련한 항목

목에서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었다.

(3) 표준체형집단

표준체형집단의 신체만족도항목의 인자분석결과<표 10>, 추출된 인자수는 4개로 전체집단의 인자수와 같으며 표준체형집단은 이 4개의 인자로 전체 변량의 80.4%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인자 1은 몸통부위의 둘레항목들에서 높은 부하량을 보여 몸통부위 둘레와 관련한 인자로 해석된다. 인자 2는 다리부위인자로, 인자 3은 키와 몸무게 인자로 분석되었다. 인자 4는 팔부위 및 어깨너비 인자로 해석되었다.

<표 10> 표준체형집단의 신체만족도 인자구성내용

인자	고유치	변량기여율	인자의 내용
1	7.83	43.5%	몸통부위 둘레와 관련한 인자
2	2.89	16.1%	다리부위와 관련한 인자
3	2.09	11.6%	키와 몸무게 인자
4	1.65	9.2%	팔부위 및 어깨너비와 관련한 인자

(4) 뚱뚱한 체형집단

신체만족도항목의 인자분석결과<표 11>, 추출된 인자수는 5개로 전체 변량의 85.6%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각 체형집단별 추출된 인자수를 비교해보면 뚱뚱한체형집단이 다른체형집단(전체집단=4인자, 마른체형집단=3인자, 표준체형집단=4인자)보다 추출된 인자수가 많고 마른체형에서 뚱뚱한체형집단으로 체형이 비만화될수록 추출인자수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른체형에서 뚱뚱한체형으로 신체가 비만화할수록 신체만족도의 평가에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인자의 내용도 세분화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1> 뚱뚱한체형집단의 신체만족도 인자구성내용

인자	고유치	변량기여율	인자의 내용
1	7.28	40.4%	엉덩이둘레, (하)몸통둘레와 다리부위 관련 인자
2	3.08	17.1%	상반신 몸통부위 관련인자
3	2.11	11.7%	몸무게
4	1.63	9.1%	키와 어깨너비의 인자
5	1.32	7.3%	팔부위와 관련한 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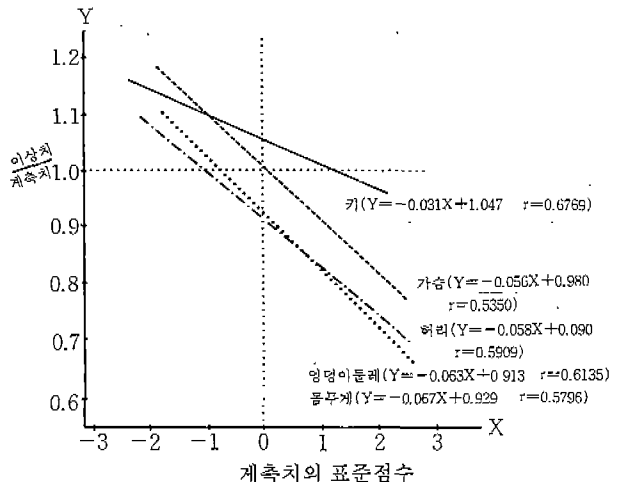
4. 현실치와 이상치의 비교검사

계측치와 예측치에 대한 이상치의 비를 비교검사하여 신체부위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가장 많은 관심을 표명하는 키, 몸무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5항목에 관하여 실제계측치의 표준점수=(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독립변수로, 각 개인의 현실치에 대한 이상치의 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에서 Y축은 계측치에 대한 이상치의 비를 나타내며 X축은 계측치의 표준점수를 나타내는 회귀직선이다. 계측치인 현실치에 대한 이상치의 비인 Y축은 y=1일때 현실의 계측치와 이상치가 같음을 의미하며 y=1의 수평직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현실치보다 이상치가 큰것을 의미한다.

또한 x축은 계측치에 의한 표준점수이므로 x=0의 수직선을 기준으로 x=+점수일때는 피험자의 계측치가 평균보다 크음을 의미하며 x=-점수일때는 계측치가 평균보다 작음을 의미한다.

키의 직선은 계측치 표준점수 x=+1.2의 부근에서 y=1의 현실치에 대한 이상치의 기준선과 만나고 있다. 따라서 표준점수 x=0이하에 속해 자신의 키가 평균보다 작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특히, 표준점수 0~+1.2에 속해 자신의 계측치가 평



<그림 1> 신체계측치와 이상치의 관계 직선

균보다 큰 사람들도 현재보다 키가 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키의 직선은 그 기울기가 크지 않아 현실의 계측치와 이상치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슴둘레의 직선은 계측치 표준점수 $x=0$ 의 부근에서 현실치와 이상치 비의 기준선 $y=1$ 이 만나고 있다. 따라서 가슴둘레에서는 현실의 계측치가 평균보다 작은 사람은 크게 되기를, 현실의 계측치가 평균보다 큰 사람은 작게 되기를 원하며 가슴둘레의 계측치가 평균적인 사람들의 이상치는 현실의 계측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허리둘레의 직선은 $x=-1.2$ 의 부근에서 $y=1$ 의 직선이 만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계측치 표준점수가 $x=-1.2$ 까지 계측치가 작은 사람들도 현재의 계측치보다 가늘어지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엉덩이둘레와 몸무게의 직선은 계측치 표준점수 $x=-0.8$ 의 부근에서 현실치와 이상치의 기준선 $y=1$ 의 직선이 만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계측치 표준점수가 $x=-0.8$ 정도까지 계측치가 작은 사람들도 현재의 계측치보다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5. 비만·빈약에 대한 의식과 객관적 비만도의 비교고찰

개관적인 비만빈약의 판정결과인 체형집단별로 각 개인의 비만·빈약에 대한 신체 의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분할표분석으로 고찰하였다.

〈표 12〉에서 마른체형집단으로 해당되어 비만

하지 않다고 판정된 개인에서도 자신의 비만정도가 보통이상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89.59% 존재하고 있으며, 표준체형에서는 약간 뚱뚱하다고 평가한 38.1%, 뚱뚱하다고 평가한 11.4%를 포함하여 94.29%가 자신의 비만정도가 보통이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뚱뚱한체형집단에서는 약간 뚱뚱하다(46.4%)와 뚱뚱하다(41.1%)라고 평가한 87.5%를 포함하여 100%의 사람이 자신의 신체가 보통이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된 비만정도가 이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비만하다고 판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평가 및 신체부위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이상치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신체가 날씬하고자하는 의식의 반영에 의한 결과로 해석되진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체계측을 통하여 중년여성의 체형 특성을 파악하고 동시에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상적으로 설정한 신체이상형과 실제신체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각 개인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 및 신체의 비만·빈약에 대한 의식등을 분석함으로써 실제신체와 복합적 신체이미지와와의 종합적 관계를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

1. 신체 각 부위 크기에 대한 평가조사결과, 굵기와 관련한 부위에서는 보통이상으로 굵다라고

〈표 12〉 체형별 비만·빈약에 대한 분할표분석

비만·빈약의식 체형	비만·빈약에 대한 의식					
	말랐다	약간 말랐다	보통이다	약간 뚱뚱하다	뚱뚱하다	합 계
마른체형	2(4.1%)	8(16.3%)	26(53.1%)	13(26.5%)		49(23.3%)
표준체형		6(5.7%)	47(44.7%)	40(38.1%)	12(11.4%)	105(50.0%)
뚱뚱한 체형			7(12.5%)	26(46.4%)	23(41.1%)	56(26.7%)
합 계	2(1.0%)	14(6.7%)	80(38.1%)	79(37.6%)	35(16.7%)	210(100%)

평가하였고 특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등의 하반신 몸통부위 및 몸무게의 항목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졌다. 길이와 관련한 부위에서는 보통 이하로 작거나 짧다라고 평가하였고 특히 키의 항목에서 그 경향이 강하였다.

2. 신체평가와 신체만족도의 상관관계분석결과, 신체 굵기에 관한 모든 항목에서 '작고, 가늘고, 가벼운' 것에 만족하는 음의 상관으로 나타났으며, 신체 길이에 대한 항목에서는 '크고, 긴것'에 만족하는 양의 상관으로 나타났고, 굵기부위의 상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체계측치와 신체만족도의 상관정도는 신체평가와 신체만족도의 상관계수들보다 낮게 나타나 신체만족도는 신체계측치보다는 신체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더욱 관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계측자료를 이용한 전체 중년여성의 Röhrer 지수는 1.55로 나타났고, 마른체형집단의 Röhrer 지수는 1.33, 표준체형집단은 1.53, 비만체형은 1.82로 나타났다.

각 체형별 피험자분포는 마른체형집단에는 40~44세 연령집단이 61.29%로 가장 많이 속해 있으며, 45~49세 연령집단은 22.58%로 그 분포율이 현저하게 낮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54세 연령집단에서는 16.13%로 나타나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45~49세 연령집단의 분포율과 비교해서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체형집단은 전 연령대에서 30%이상의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비만체형집단에는 50~54세의 연령집단에서 45.31%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40~44세의 연령집단의 분포율이 가장 낮았다.

4. 체형집단별 신체만족도에 작용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마른체형집단은 몸무게 및 상·하반신의 몸통부위와 관련한 인자가 제1인자로 파악되었고, 표준체형집단은 몸통부위와 관련한 인자가 제1인자로 파악되어 신체중심부위의 비만 인자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뚱뚱한체형집단에서는 하반신몸통부위와

관련한 인자가 제1요인으로, 상반신몸통부위와 관련한 인자가 제2인자로 파악되었고 다른 체형집단보다 추출된 인자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른체형집단에서 뚱뚱한체형집단으로 신체가 비만화할수록 신체만족도에 작용하는 요인이 많아지고 인자의 내용도 세분화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5. 개인의 신체에 대한 비만빈약의 의식조사 결과, 객관적으로 판단된 체형의 비만정도이상으로 자신의 신체가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날씬한 신체를 지향하는 의식의 반영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년여성의 체형특성 및 각 개인의 신체의식등을 고려하여 신체적·심리적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실용적 원형개발 및 디자인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국한되어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하며 표본지역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참고문헌

- 1)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1(1), pp.163~180.
- 2) 손희순(1989),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의 체형과 의복치수규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이영운(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2), pp.136~137.
- 4) 이영희(1987), 비만체형을 위한 기본 Slacks 원형 연구중년기 부인을 대상으로, 부산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이종남(1982), 노년기 여성의 의복제작을 위한 체형연구 : 주성분분석에 의한 분류, 서울대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정삼호(1991),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연구(I)-선의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pp.103~114.
- 7) 정재은·이순원(1993), 20대 여성의 실제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pp.448~458.
- 8) 한애미(1987), 비만체형을 위한 기본 Bodice 원형 연구 : 중년기 부인을 대상으로,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허명희·서혜선(1996), SAS회귀분석, 자유아카데미.
- 10) Karen L. LaBat · Marilyn R. DeLong(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pp.43~48.
- 11) Kefgen, M., & Touchie-Specht, P.(198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4th ed), N.Y. : Mac-Millan.
- 12) Tate, M.T. & Glisson, O. (1963), Family Clothing, N.Y. : John Wiley & Sons, Inc., pp.327~332.
- 13) 植竹桃子(1988), 衣服設計の立場からみた肥りやせの意識, 日本家政學會誌, 39(7), pp. 711~723.
- 14) 神山進·牛田聰子·併田庸(1987), 自己と被服との關係(第2報),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28(2), pp.77~84.

ABSTRACT

A Study on Real somatotype and Body consciousness of Middle-aged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ifferences between real somatotypes and cog-

nitive somatotypes by consider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body parts.

The subjects were 250 middle-aged women from 40~54. Data was collected through anthropometry and surveys.

Data was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ova, duncan multiple range test,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Middle-aged women tend to prefer having a slim trunk, long and slim limbs, and their hope was to be tall in height and light in weight, slim at the waist and abdomen.

2. The consciousness about thickness was intensified more than that about length of the body.

3. The slim somatotype group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body than those of obese somatotype group.

4. The average R hrer Index of middle-aged women is 1.55, and the slim somatotype group is 1.33, and the standard somatotype group is 1.53, obese somatotype group is 1.82.

Age has much influence on the body change of middle-aged women. Especially 45~49 years old, the slim body type declined heavily.

5. When analyzing the elements of body satisfaction, the biggest elements are in the subject of girth related to the expansion of trunk. Therefore, trunk girth has more influence on body satisfaction than height and limbs.

So the obsession of trunk girt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body satisfacthion.

6. Most middle-aged women, although not judged to be obese by measurements, believed themselves to be obese.